

“김종중의 이름으로”

김종중 노동열사 민주노동자장...갑을오토텍지회, “미완성 투쟁 승리해 동지께 바치겠다”

“함께 싸운 만큼 함께 이기고 싶었던 동지, 그러나 함께하지 못한 한 동지를 보냅니다. 남겨진 우리에게 동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미완성의 이 투쟁, 꼭 승리해서 동지께 바치겠습니다.”



김종중 씨는 “동생과 함께 투쟁하고, 동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신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라며 “이 세상에서 힘들었던 일 모두 잊고, 편안하길 바란다. 동생아, 사랑한다”라는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재현 지회장은 “김종중 열사를 가슴

김종중 열사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같은 분임조에서 활동한 유광석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은 김종중 열사를 떠나보내는 자리에서 약속했다. 김종중 열사를 내내 ‘동지’라 부르던 유광석 조합원은 “마지막으로 인사드린다”라며 “김종중 열사여, 부디 평안히 영면하소서”라고 기원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재현, 아래 지회)와 김종중 열사 장례위원회는 7월 22일 ‘김종중 노동열사 민주노동자장’을 치렀다. 김종중 열사가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와 불법 직장폐쇄에 항거하며 목숨을 끊은 지 96일 만이다.

유족과 지회 조합원은 7월 22일 오전 8시 30분 아산시 염치읍 참오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제를 올렸

다. 조합원들은 10시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영결식을 거행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갑을오토텍을 변호한 박형철 변호사, 신현수 변호사를 각각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노조파괴로 동료를 잃은 노동자들의 인사 철회 호소에 귀 기울이는 일이 그토록 어렵나”라고 비판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사에서 “수많은 열사가 민주노조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다. 이제 노조파괴를 끝장내야 한다”라며 “금속노조가 부당한 권력과 자본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유족인사에서 김종중 열사 형인

에 품고 못다 한 투쟁을 이어가겠다. 꼭 노조파괴 없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내겠다”고 호상인사의 말을 했다.

영결식을 마친 유족과 조합원들은 김종중 열사의 일터인 갑을오토텍 공장으로 옮겨 노제를 벌였다.

이대희 지회 대의원은 “이제 우리는 동지를 보내드리려 한다. 동지가 희망했던 것들을 살아남은 우리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라며 “노조파괴가 없는 세상, 탄압과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편안히 영면하시라”라고 기원했다.

유족과 지회, 충남지부 조합원들은 열사가 영원히 안식할 천안시 병천면 풍산공원묘역으로 이동해 17시 쯤 봉안식을 거행했다.